

## 국가별 동향



### 영국

#### 동물 복지에 맞춰 키운 닭, 더 많이 팔려

Sainsbury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 소매점에서의 닭 소비 형태를 보면 판매량의 60% 이상이 동물 복지형으로 키운 닭인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마켓 체인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새로운 시장 잡기에 나섰다.

YouGov research에 의하면 비록 소비자들이 높은 식료품 가격과 씨름하면서도 비싼 제품을 찾는 이유로, 좋은 환경에서 자란 보다 안전한 식재료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8%나 나왔다.

Sainsbury는 앞으로 이런 치킨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2006년 14%에서 2007년에는 60%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 이러한 전망을 설득력 있게 하는 근거이다 (출처 : World Poultry).



### 일본

#### 크리스마스용 치킨 한 마리 847달러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일본 경제에 짙게 드리운 가운데 일본의 한 백화점이 한 마리에 847달러짜리 훈제치킨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 타카시마야 백화점은 최근 크리스마스 전야 축제용 치킨 판매를 위한 주문 접수에 들어갔다. 프랑스의 고급 식품업체 'Fauchon'이 만드는 이 치킨요리는 프랑스 Landes 지역에서 키운 식용 수탉에, 진미로 꽂히는 검은 송로버섯과 거위간, 화이트 소시지, 밤 등을 넣어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타카시마야의 대변인은 “가격이 다소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파티를 위해서는 이보다 완벽한 음식은 없다. 무겁지 않고 쫀득한 육질에 향긋한 송로버섯의 향기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 마리당 6~8명이 즐길 수 있는 이 치킨요리에 대한 주문은 아직까지 한 건만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출처 : Reuters).



### 미국

#### 암과 싸우는 닭 개발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종합 암 센터의 과학자들은 닭에게 천연 식물추출물을 급여하여 항암 식품을 만들었다.

연구진들은 목화에서 찾은 천연 성분인 gossypol을 사료에 섞어 먹이면 항암 성분을 지닌 계란을 낳는다고 밝혔다. 동 대학의 Michael Caliguiri 교수는 실험 과정에서 gossypol이 암 성장을 느리게 하였고, 일부 모델에서는 암 확산을 억제했다고 강조했다.

gossypol의 항암 효과를 사람이 얻기 위해서는 먼저 닭에게 이것을 급여해 키워서 먹거나 또는 그 닭이 낳은 계란을 먹는 것이 천천히 더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Young C. Lin 교수는 전했다(출처 : World Poultry).



## 캐나다

### “닭보다 알이 먼저 생겼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오래된 수수께끼가 마침내 답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답은 ‘알’이 먼저! 답을 제공한 단서는 7천700만년 전의 공룡 알 등지에서 나왔다.

캘거리 대학과 앤버타 소재 티렐 박물관의 과학자들은 지난 1990년대에 미국 몬태나주 북부 지역의 강가 모래톱에서 발견된 공룡 알 등지가 타조처럼 생긴 시아나그나티드, 또는 작은 맹금류에 속하는 드라메오사우리드의 것이라고 추정했다. 둘 모두 공룡으로서는 작고 오늘날의 새와 유연관계에 있는 것들이다.

지름 50cm 정도의 등지 속에는 최소한 5개, 최대 12개의 부분적인 알 화석이 남아 있었는데 연

구진은 강물이 불어 오르자 어미 공룡이 부화되지 못한 알들을 버려두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 등지의 특징이 새의 등지와 공통점이 있다면서 이를 통해 어미가 알을 품고 등지를 만들고 끝이 뾰족한 알을 낳는 등 새들의 특성이 언제부터 유래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물론 “닭이 먼저냐, 달같이 먼저냐”라는 본질적인 수수께끼의 답을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닭을 비롯한 새가 공룡으로부터 진화하기 훨씬 전부터 육식 공룡들은 새 등지와 같은 등지를 만들고 새와 같은 방식으로 새의 알과 같은 알을 낳아 온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출처 : Live Science).



## 대만

### 닭 사육에 음약 효과 만점

대만 정부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개발된 닭 사육에 도움이 되는 음약을 도입했다.

높은 사료 가격으로 힘겨워 하는 양계농가들에게 정부는 닭들이 하루에 3~4시간씩 사료를 먹는 시간에 맞춰 음약을 들려주도록 했다.

Yunlin 지역의 한 농가는 “과거에는 3kg이 되려면 90일을 키워야 했었는데 음약을 들려주고부터는 80일이면 된다. 그 결과 체중이 빠르게 늘어나, 사육 기간을 줄임으로써 사료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만족스러움을 나타냈다(출처 : World Poultry). **양계**